

이 圓板은 鍍金되었는데 徑三〇·五cm로서 隆起된 中央에 方孔(一·五×一·二cm)이 있다.

〔銘〕 正德十六年「辛巳四月十五日」大施主閑山李氏「大施主金氏」大施主金彭祖「比丘□□」比丘□□施主□□「崔洪」閑山尹氏「□□」春□□□觀「金火同」(以下五行不明)

— 第二卷 第二號 通卷七號 —

在日石獅坐像과 그 方形臺座

黃 壽 永

韓日會談에서 文化財返還이 論議되고 있던 一九五九年 九月에 日本前 衆議院議長이던 星島二郎氏에 依하여 個人所藏의 石造物 三點이 自進返 還되어 우리 代表部 庭園에 運搬된 것은 그 當時 이미 報道된 바이거나 와 그中 二點은 陵墓에 配置되었던 李朝의 望柱石과 香爐臺인 바 이 點에 紹介하려는 石獅와 그 臺座는 모두 新羅의 優作으로서 그 年代도 西紀 八百年頃으로 推定되는 稀品이다. 이것이 日本에 搬出된 것은 今世紀初



에 合邦前後인 듯한 데 (一說에는 伊藤 博文의 搬出品이라 한) 李王塚殿下의 東京邸宅에 保存되어 오다가 戰後에 同邸宅이 賣渡될 때 星島氏가 讓受하였던 것 이라 한다. 原所在地點은 不明인데 元來 雙軀 또는 四軀를 이루었던

것으로 짐작될 뿐이다. 石獅는 前後 四肢를 모아서 坐形을 하였는데 下部가 좁아져서 安定感이 不足하다. 頭部는 正面하여 눈, 코, 特히 口는 開口하여 매우 큰데 姿勢나 彫法에서 求禮華嚴寺 四獅三層石塔의 遺例와 곧 比較될 것이며 年代 또한 前後할 것이다. 豐滿한 頭鬣이 彫刻되었고 瓔珞頸飾이 느리워진 것도 같은 手法인데 體軀의 彫法이 纖弱하고 前肢는 圓柱와 같이 硬直하여 年代는 若干 降下되는 作品으로 推定되었다.

高一二一cm의 巨品으로서 保存도 良好하며 特히 그 臺座가 具存함은 多幸이다. 方形을 이루는 臺座는 下部에 一段의 받침을 만들어 下臺石을 偶意하였고 頂上에도 方形一段을 刻出하였는데 隅角은 「모」를 없애는 柔軟한 솜씨를 보인다. 四方面石에는 頂上에 眼象을 새겨 下部 兩隅에 이르러게 하였고 그 內面에는 天人像 一軀씩을 配置하였는데 그中 二軀는 樂天이며 他二軀는 供養像으로 모두 單瓣蓮座上에 各樣의 姿勢를 取하고 있으며 天衣는 周圍에서 飄空하여 流麗한 솜씨를 보인다. 奏樂像 中 一軀는 橫笛을, 他一軀는 琵琶를, 供養像의 一軀는 圓盤을, 他一軀는 杯形器를 가지고 있는데 寶冠이나 飛天의 溫和한 顔容이나 寫實的인 姿勢 또는 身臺方式에 있어서 뿐 아니라 樣式과 彫法에서도 짐작되는 바인데 이같은 樣式은 上學한 華嚴寺 獅子塔 下層基壇의 天人像에서도 볼 수 있는 바이다.

總高二〇四cm로서 臺座의 高 八三cm 幅 七七cm 配置의 方式은 卍形수가 없으나 寺院內의 堂塔 또는 門樓같은 곳에 配置되었던 것으로 推定된다.

〔註〕 望柱石은 高一七〇cm로서 寶珠形頭飾은 唐草文이며 香爐臺는 方形一石으로 四足を 刻하였는데 高 五五cm이다.